



사천시보

<http://www.sacheon.go.kr>



2015년 11월 2일
NO. 235

FAX : 055)831-6012, E-Mail : shgongbo@korea.kr

발행인 사천시장 / 발행처 사천시 : 우)52539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덕곡리501) / 편집 공보감사담당관 / 전화 055) 831-2215 / 1996년 1월 25일 창간



사천8경중 봉명산 “다솔사”의 가을... 사천의 가을산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관련기사 2면)

☞ 주요 지면안내

02

사천의 가을, 산이 물들다

04

2016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06

지적재조사사업 효과

08

제192회 시의회 임시회 개최

사천시와 SNS 친구맺기

- facebook.com/risingsacheon
- story.kakao.com/#ch/sacheoncity
- twitter.com/risingsacheon

사천의 가을, 산이 물들다!

-와룡산, 봉명산, 각산, 이구산-

사천의 가을산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거대한 용 한 마리가 누워있는 구구연화봉 '와룡산', 편백림의 울창한 숲과 만해 한용운 선생이 독립운동의 뜻을 품은 '봉명산', 한려수도의 푸른바다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각산', 선비의 정신을 간직한 '이구산'까지 사천의 명산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와룡산 사자바위.



각산 봉화대.

☞ 와룡산 (801.4m)

와룡마을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이어지는 주능선이 암봉에 둘러싸여 있어 높이에 비해 산세가 웅장해 보인다. 새섬봉과 상사바위(천왕봉)·기차바위·민재봉 등의 암봉이 부드러운 능선길과 묘한 대조를 이루고, 주봉인 민재봉에 오르면 한려수도와 남해의 크고 작은 섬과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와룡산에는 가야 김수로왕의 일곱왕자가 득도하였다고 전해지는 삼한갑찰 와룡사와 구룡사 등의 사찰터가 남아 있다.

☞ 산행코스

- ☞ 제1코스 : 남양저수지>도암재>새섬바위>민재봉 (5.0km, 약2시간 30분)
- ☞ 제2코스 : 백운골주차장>백천재>민재봉 (2.7km, 약2시간)
- ☞ 제4코스 : 웅두마을>기차바위>민재봉 (6.5km, 약3시간 30분)
- ☞ 제5코스 : 웅현신기>약수암>안점봉화대>하늘만당>백천재>민재봉 (10.9km, 4시간)
- ☞ 제7코스 : 웅현신기>약수암>하늘만당>백천재>민재봉>기차바위>웅두마을 (17.4km, 7시간30분, 종주코스)

※ 산불예방을 위해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3코스, 6코스는 폐쇄합니다.

☞ 각산 (408m)

행정구역상 사천 동지역에 위치하며 접근성이 양호하고 산세가 가파르지 않아 아침·저녁으로 시민들이 자주 찾는 산이다. 삼천포 및 남해의 섬들과 한국의 아름다운길 대상에도 선정된 창선~삼천포대교가 한눈에 보여 한려해상의 수려한 경관을 만끽 할 수 있다. 또한 각산산성과 봉화대가 위치하고 있어 각산의 위치적 중요성을 더욱 일깨우고 있다. 한편 '사천바다케이블카'가 설치되는 산이기도 하다.

☞ 산행코스

- ☞ 제1코스 : 문화예술회관>각산약수터>송신탑>전망대>봉화대>각산산성>대방사 (3.12km, 1시간 40분, 종주코스)
- ☞ 제2코스 : 문화예술회관>각산약수터>송신탑>전망대>대방약수터>대방사 (2.75km, 1시간 30분, 종주코스)
- ☞ 제3코스 : 문화예술회관>각산약수터>송신탑>전망대 (1.51km, 1시간)
- ☞ 제4코스 : 문화예술회관>각산약수터 (0.93km, 40분)
- ☞ 제5코스 : 문화예술회관>각산약수터>송신탑>봉화대 (1.94km, 1시간 10분)
- ☞ 제6코스 : 웅운사>송신탑>전망대 (1.07km, 40분)



봉명산 등산로 입구.

☞ 봉명산 (407m)

사천시 곤명면 용산리에 위치한 봉명산은 1983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으로 방장산 또는 주산이라고 불리 운다. 풍수지리학적으로 봉(鳳)이 우는 형국이라 하여 이름 붙여졌으며, 입구부터 펼쳐진 울창한 편백림으로 산림욕을 즐길 수 있고 정상에서는 남해 바다와 섬들을 내려다 볼 수 있다. 산사의 향긋한 맛과 고풍스러운 멋을 간직한 전통사찰인 '다솔사'의 대양루, 극락전 등 가을 단풍과 어우러져 멋진 볼거리를 제공한다.

☞ 산행코스

- ☞ 제1코스 : 다솔사 > 정상 > 보안암 (3.0km, 1시간30분)
- ☞ 제2코스 : 곤명면 무고리만점 > 보안암 > 정상 (2.0km, 1시간30분)
- ☞ 제3코스 : 곤명면 초량리 > 서봉암 > 보안암 > 정상 (4.0km, 3시간)



이구산 아래 수청숲.

☞ 이구산 (370m)

이구라는 말은 본래 공자가 태어난 산 이름으로 '이산'이라고도 하는데 공자를 다르게 부르는 칭호를 말하는 것으로, 옛날 이 산아래 선비들이 많이 살았는데 당시 유학사상이 사회를 널리 풍미할 때 공자를 흠모한 나머지 이산의 이름을 공자의 칭호를 따서 붙여진 것으로 알려진다. 산의 형태는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처럼 길게 뻗어 있으며, 산이 완만하고 공기가 깨끗하여 산림욕을 즐기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산이다.

☞ 산행코스

- ☞ 제1코스 : 이구산입구>정동 선황사>성황당산>이구산>흥무산>새마을도로 (9.0km, 약 4시간)

항공우주도시 입증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성황리 폐막
26만여명 방문, 내년 공군에어쇼 예정

지난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개최된 ‘제11회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가 전체 26만 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성황리에 폐막했다.

올해 11회째를 맞은 사천항공우주엑스포는 청명한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에어쇼와 내용이 알차고 다양한 체험·전시 행사로 연일 인기몰이를 하며,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적인 체험형 항공우주 축제로 자리매김 했다.

“사천비상, 항공우주의 꿈! 우리의 힘으로!”라는 슬로건으로 4일 동안 사천의 푸른 하늘을 수놓은 화려한 에어쇼에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탄성을 터트렸

으며, 항공기 탑승 체험을 비롯한 여러 전시·체험 프로그램은 행사의 흥미와 만족을 더 했다는 평이다.

사천항공우주엑스포의 인기 비결은 단연, 짜릿하고 스틸 넘치는 곡예비행과 시범비행으로 구성된 ‘에어쇼’였다. 세계 최고의 인정을 받은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팀’의 최상급 곡예비행이 4일간 사천비행장 일원에서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환호와 박수갈채가 연이어 쏟아졌다. 특히 ‘블랙이글팀’은 에어쇼 후 조종사들의 사인회를 가짐으로써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항공분야의 꿈을 심어주었다.

물론 군부대라는 행사장의 특성상 제한적인 접근 경로와 동 시간대 관람객 집중으로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관람 후 귀가할 때 셔틀버스를 타기 위해 장



항공기 탑승 체험하는 아이들.

시간 줄을 서야 하는 불편함이 다소 초래되어 아쉬움이 남았다.

한편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항공우주엑스포는 이제 해마다 20만 명 이상이 찾는 국내를 대표하는 에어쇼이자 체험 위주 항공우주 행사로써 사천시가 항공우

주산업의 메카임을 입증하는 행사였다.”며, 올해 행사를 교훈으로 삼아 내년에는 공군본부에서 주관하는 ‘공군에어쇼’ 유치 등 더욱 알차고 다변화된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 항공산업과 | 831-3474

사천시민 화합의 장, 체육대회 성료

제1군팀 사천읍, 제2군팀 남양동 우승

지난 17일(토) 삼천포종합운동장에서 12만 시민의 소통과 화합의 장인 ‘제15회 사천시민체육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2012년~2013년도 ‘제52회 경남도민체육대회’ 준비·개최와 2014년도 세월호 사고 등으로 인해 4년만에 개최된 이번 대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식후공개 행사에 이어 전체 14개 종목 1,585명의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선보였다.

이날 개회식에서 14개 읍·면·동은 다양한 소품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선수단 입장을 연출했으며, 삼천포중학교 학생

들의 환상적인 ‘난타공연’과 육군8919부대의 멋진 ‘특공무술 시범’ 등 식후 공연으로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또한 40여년간 이웃돕기와 지난해 1억원의 발전기금, 올해 1억원의 장학기금을 기탁한 곤양면 출신 문기호 부부의 성화 봉송으로 대회의 막을 올렸다.

특히 이번 대회는 처음으로 읍·면·동 인구수 기준으로 군별(제1군팀, 제2군팀) 대항전 경기방식 도입으로 인구수 차이에 따른 형평성을 보완했으며, 그 결과 더욱 흥미진진한 진행으로 경기를 관람하는 시민들의 열띤 응원과 환호가 가득했다. 그리고 ‘읍·면·동장 및 조직단체장



사천시민체육대회 여자씨름 장면.

릴레이’와 ‘지구를 굴러라’ 종목이 새로 추가되어 시민들의 화합과 경기를 보는 재미를 더 했다는 평이다.

한편, 이번 체육대회 결과 제1군팀 우승은 사천읍, 준우승 정동면, 3위 사남면, 제

2군팀 우승 남양동, 준우승 선구동, 3위 서포면에서 입상장은 용현면과 동서금동, 향촌동에서 차지했다.

☎ 체육지원과 | 831-2411

전통시장 축제로 활성화 발판 마련

삼천포중앙시장,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사천읍시장

지난 10월은 시를 대표하는 전통시장 3개소에서 가진 ‘전통시장 축제’로 서민경제의 큰 축인 시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즐기고 관광객들에게 널리 홍보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한 시기였다.

이번 축제로 각 전통시장에서는 불거리와 먹거리, 즐길 거리를 풍성하게 제공하고, 할인행사, 즉석경매, 먹거리장터 운영, 초청가수 공연 등 시장별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축제 방문객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았다.

삼천포중앙시장 상인회(회장 채명수)에서는 지난 14일(수)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삼천포중앙시장 일원에서 ‘제10회 한아름 장바구니 축제’를 개최했

다. 축제는 지역 품물팀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축하 개막식, 시민·고객과 함께하는 노래자랑, 즉석경매, 가수·지역공연단 초청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이날 하루는 전체 점포에서 전 품목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판매 물품이 동이 날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

또한,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상인회(회장 이규철)는 지난 17일(토)부터 18일(일)까지 이틀간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일원에서 ‘제3회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용궁축원제’를 가졌다. 이날은 상인과 고객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기념식을 시작으로 나눔활동, 체험마당, 도전마당에 이어 축제 한마당이 펼쳐졌다. 용궁시장 상인회는 이번 축제가 전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



삼천포중앙시장 장바구니 축제장에서 열린 공연.

축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평했다.

그리고 사천읍전통시장 상인회(회장 신승수)는 지난 20일(화) 사천읍시장 일원에서 ‘제8회 사천읍전통시장 신바람장바구니 축제’의 막을 올리고 “시장은 우

리의 문화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지역민 5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번 축제로 읍중심지 공동화와 대형마트 입주로 침체된 사천읍시장을 시민들에게 친근한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었다. ☎ 투자유치과 | 831-3061

“시민이 행복한 인구 20만 강소도시 건설 집중”

내년도 주요업무보고회 가져

시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시청 중회의실(3층)에서 송도근 시장과 실·과·소장 및 담당주사가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분석·점검하고 민선 6기 공약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을 반영하기 위한 부서별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였다.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시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시정지표를 구현하기 위한 사천시의 사업계획이 주요 내용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인구 20만 강소도시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전략사업도 포함되었다.

특히, 이번 보고회는 2015년도 업무추진 성과 보고 및 일반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함께 전 부서에서 발굴한 ‘사천시 발전 전략사업’을 보고했으며, 전략사업에는 미진하였거나 개선하여야 할 업무와 새롭게 추진하여야 할 업무 등 총 36건을 발굴하여 보고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채택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게 된다. 한편 시는 민선6기 송도근 시장 취임 이후 일하는 조직으로 직제를 개편하고 사천시 미래발전 전략보고회, 업무발전 토론회 및 효율적인 업무개선 24건 발굴 등 시민을 위한 창의적이며 역동적인 시정시책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기획예산담당관 | 831-2210



“인문도시로 비행하라” 사천인문, 날개를 달다

교육부·한국연구재단 지원 ‘인문대중화 사업’에 선정

시는 지난 10월 1일 시청회의실에서 송도근 시장과 권순기 경상대학교 총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문도시 사천 협약식 및 선포식’을 가졌다.

시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최하는 인문대중화 사업의 일환인 ‘인문도시 사업’에 선정되어 내년 8월까지 국비 1억원 등 총 1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인문학 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문도시로 비행하라:사천인문, 날개를 달다!’라는 주제로 시와

경상대학교가 후원하고, 사천문화재단, 경상대인문학연구소가 공동 주관하며, 사천교육지원청, 중앙무형문화재 제11-1호 진주·삼천포농악보존회, 가산오광대보존회, 극단 장자번덕, 경상대 대학원 문화콘텐츠협동과정 등이 참여한다.

‘인문도시 사천’ 사업은 사천문화재단(이사장 송도근 시장)과 경상대 인문학연구소(소장 김남향 불어불문학과 교수)가 손잡고 ‘인문도시 사천’ 사업을 진행하며, 인문학의 가치를 현실의 우리 삶에

투영하고 접목함으로써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 ‘인간과 그 삶의 가치’ 회복을 도모하는 인문 공동체로서의 ‘인문도시 사천’ 구현을 궁극적 목표로 한다.

세부 사업으로 ‘인문강좌’, ‘인문체험’, ‘인문축제’ 등이 서로 연계되어 펼쳐지며 강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서포터즈 맵핑(Mapping)도 함께 진행된다.

경상대 인문학연구소와 사천문화재단(대표이사 강영철)에 따르면, 사천시는 인문학적 보물이 숨겨진 도시라고 한다. 문학적으로는 비토섬의 별주부전 등 고

전문학과 다솔사의 문학적 가치를 조명해 볼 수 있으며, 낙도 철기시대 유적, 곤명(곤양)면 청동기 시대 유적, 이순신 장군의 사천해전 등이 역사적 콘텐츠가 된다. 또한 구암제, 진주·삼천포 농악, 가산오광대 탈춤, 마도 갈방아노래 등도 ‘인문도시 사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밑거름으로 충분하다.

한편 이날 선포식에 참석한 송도근 시장은 “이번 인문도시 사업으로 사천시가 지니고 있는 문화·역사적 자료들이 세상에 드러나고 재평가 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참여 기관들의 성공적인 사업추진과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 문화정보과 | 831-2710



원스톱 민원처리 ‘일석이조’

복합 인·허가 민원 원스톱담당 신설 효과

시가 지난 1월 2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시청 1층 민원봉사과 내에 원스톱민원담당을 신설하여 각종 복합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함으로써 민원편의와 행정효

율성 제고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 시는 원스톱민원담당 신설후 현재 까지 △건축신고·허가 등 건축분야 2,900여건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토목분야 670여건 △농지전용허가·협의 등 농업분야 520여건 등의 복합 민원을 처리했다. 시는 앞으로도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원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한편,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과 처리기한 단축 등으로 민원인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 민원봉사과 | 831-3224

산불 제로화 본격 추진 전문 진화대·감시원 선발

시는 지난 10월 6일 산불조심 기간에 즈음하여 읍·면·동 산불업무 담당주사 및 담당자 28명을 대상으로 산불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산불 제로화를 위한 주민 홍보활동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소속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산불 예방 활동 사례를 설명 듣고, 산불진화 방법 등을 실습해봄으로써 산불 예방과 산불 초기대응 능력을 기르는 계기가 되었다. 시는 2015년 가을철 및 2016년 봄철 산불

조심 기간(20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5월 15일)동안 최 일선에서 산불예방을 담당하게 될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 및 감시원’의 선발을 완료하고 11월 2일 실시하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산불예방 활동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일선에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관내 유관기관, 학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불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2014년 가을철 및 2015년 봄철에 달성한 ‘산불 제로화’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 녹지공원과 | 831-3425



신규공무원 임용으로 공직의 새바람 기대

고강도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시는 지난 10월 7일 2015년 제2회 신규 공무원 임용 44명과 실무수습 2명 등 총 46명에 대하여 임용장을 수여했다. 시는 지난 5월 제1회 사회복지직 신규공무원 5명을 임용했으며, 이번 신규임용으로 그동안 명예퇴직과 육아휴직 등 부서별 공무원 정원 결원에 따른 내부조직 운영·관리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게 되었다.

이날 송도근 시장은 신규 임용자에게 우수한 성적으로 공직에 들어온 만큼 시민을 위하여 헌신과 봉사의 자세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신규로 임용된 공무원들은 근무 부서 배치를 받은 후 지난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가로변 청소, 재활용쓰레기 분리작업 체험, 관내 문화유적지 및



사천시는 신규공무원과 실무수습 등 총 46명에 대해 임용장을 수여했다.

관광지 투어, 직무교육 등의 내용으로 '신규임용 공무원 고강도 역량강화 교육 훈련'을 받았으며, 향후 6개월간의 9급 공무원 시보 기간을 거쳐 지방 9급 공무

원으로 정식 임용된다.

시는 이번 신규직원 총원으로 신규공무원들이 젊고 참신한 마인드로 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으며, 또한 조직내부에도 신선한 변화를 불러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행정과 | 831-2574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100% 선정

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16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공모사업에 5건을 응모하여 100%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곤명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비토·신송·구미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및 역량강화사업 등이며, 곤명면 중심지에는 5년간 60억원을 투입하여 문화·복지·경제 등의 중심지 기능을 활성화하고, 비토·신송·구미마을에는 2~3년간 각각 5억원을 투입해 마을별 체험·소득, 문화·복지, 경관·생태분야 인프라구축 및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국·도비 지원비율이 79%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시는 현재 10여건의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이 사업은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지역별 특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역량에 맞는 사업을 발굴·선정해 추진하는 주민주도형 상향식 사업으로써 그 의미가 크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에 100% 선정되는 배경에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의 특화발전 계획을 발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한 역량강화사업, 소액사업과 대동단결된 주민의 확고한 추진의지 등이 밑거름이 되었다는 평이다.

☎ 기획예산담당관 | 831-3134

삼천포중앙시장 해수인입시설공사 착공

수산물 판매점 해수공급 원활

시는 지난 10월말 삼천포중앙시장내 수산물판매 점포에 원활한 해수공급을 위해 '해수인입시설 설치공사'를 착공했다. 삼천포중앙시장은 17개소의 수산물 판매 점포가 입점하여 운영중에 있고, 최근 수산물축제 등을 통해 지역의 싱싱한 수산물에 대한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어 시장 내 다른 점포들도 수산물 판매로 업종 전환을 희망해 왔었다. 그러나 해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개별공급 비용이 높아 업종 전환을 망설이고 있었던 터

라 상인들은 이번 사업을 반기고 있다. 시는 총사업비 5억원으로 해수인입 관로(D75mm,L=935m) 및 물탱크(30ton), 살균여과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난 6월에 시설계영역과 관련부서 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오는 12월에 완공할 계획이다. 시는 해수인입시설이 설치되면 시장 내 수산물판매 점포에 원활한 해수공급을 통하여 수산물 판매 상인들의 불편해소 및 시장상권 활성화를 통한 동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투자유치과 | 831-3060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추진

2개반 16명 구성 '상황실' 운영

시는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 10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특별방역기간 동안 2개반 16명으로 구성된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비상상황을 유지하는 등 유사시를 대비한 긴급 방역 태세에 들어간다.

특히, 이번 특별방역기간 동안 구제역 예방접종 담당공무원 실명제와 가금농장 전담공무원제 추진으로 농가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공동방제단 등 소독장비를 총 동원하여 소독을 실시하는 등 관내 구제역·AI 유입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기



로 했다.

또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상시 백신 접종과 소독 등 차단방역 요령을 교육·홍보하고 축산관련 시설의 방역실태 점검, 농가예찰,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에 대한 인공위성 위치확인 시스템(GPS) 운영실태 점검 등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 농축산과 | 831-3780

가을 영농기 농기계임대 및 안전교육

야광 반사판 등 농가 배포

시는 가을철 영농기를 맞아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를 임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순회수리 및 현장 안전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시는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콤팩트 바인 외 85종 215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종당 1회 3일간 임대 가능하고 임대 수수료는 1일당 농기계 구입 가격의 0.2%를 납부하면 된다. 임대 신청은 사전 예약제(전화 및 인터넷)로 운영되며 사용 1주일 전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농기계 사용이 빈번한 영농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 순회수리 및 이·통장회의 등 각종 모임을 활용하여 농기계 기종별 안전사용 및 사고시 응급처치 요령 등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강화



할 방침이다. 특히, 도로를 주행하는 트랙터, 경운기 등의 농기계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만큼 사고예방을 위해 야광 반사판(500개) 경광등(90조)을 농가에 배포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안전사고 예방 시책'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시에서는 농가에서 농기계 작업 후 도로를 주행 할 때에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농기계에 묻은 흙 등 이물질은 제거한 후 운행할 것을 당부했다.

☎ 기술지원과 | 831-3880

사천시 기관별 청렴협약체, '천원의 행복' 행사

사천시 기관별 청렴협약체(사천시, 사천교육지원청, 사천경찰서, (주)남동발전)는 지난 '제11회 경남사천 항공우주엑스포' 행사기간동안 사천비행장내 열린공간에서 '천원의 행복'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청렴사천 이미지 제고와 청렴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참여자들은 천원기부 게시판 청렴나무에 천원을 기부하고, 돈이 필요한 사람은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여 양심과 청렴을 결부시킨 행사로써 항공우주엑스포를 찾은 방문객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었다.

이날 행사에 참여자들은 천원 기부로 행복을 느끼고 필요한 사람은 비록 적은 돈이지만 원하는 일에 쓰게 됨으로써 아낌없이 주는 청렴나무로 영글어가는 행



복하고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연출했다. 또한 참여자들은 청렴나무에 천원을 직접 붙인후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한편 청렴협약체는 4일간 '천원의 행복' 행사로 필요한 사람이 자율적으로 가져가고 남은 금액 37만원을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희망나눔4000이웃사랑'에 전액 기부했으며, 청렴 문화가 관내 대표 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발굴과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 공보감사담당관) 831-2269

■ 지역 단신

남북통일준비국민위원회 사천읍지회 출범

'남북통일준비국민위원회 사천읍지회(회장 이병기)' 출범식이 지난 10월 5일 사천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출범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사천읍지회는 위원 80명으로 구성하여 남북통일 국민운동에 출선수범하고 위원들이 뜻을 모아 온 국민의 염원인 조국 통일을 아래에서부터 준비하기 위해 출범하게 되었다. 이날은 사천읍지회 출범 경과보고, 사천읍 위원 대표(최진권) 위촉장 전달, 사천읍지회장 취임사 이어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날 이병기 사천읍지회장(사천모터스 대표, 57세)은 인사말을 통해 "머지않은 통일시대 준비를 위해 남북통일준비 국민위원들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일주유소 진영욱 대표 20년간 이어온 선형

지난 1994년부터 20여년 동안 설, 추석 명절이 돌아오면 어김없이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성금을 전달하여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이웃사랑을 실천해온 천일주유소 진영욱 대표(남, 85세)가 지난 추석을 앞두고 벌용동 회의실에서 어려운 이웃 50명을 모시고 5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근검절약을 신념으로 살아온 진 대표는 삶에 대한 존경심과 이웃사랑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아름다운 노년의 선행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뜻깊은 자리였다. 진영욱 대표는 '2014년 국민추천포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사천여고 산악부

전국체전서 '은메달' 획득

지난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강원도 일원에서 개최된 '제9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사천여자고등학교 산악동아리 소속 김세진, 박지윤, 문은혜 선수가 일반등산 단체전에서 값진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전국체전의 산악종목은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사)대한산악연맹에서 주관한 대회로 정식종목인 스포츠클라이밍과 동호인 종목으로 일반등산, 스포츠클라이밍으로 구분되어 치러졌으며, 여고부 일반등산은 지난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춘천 드림산 일원에서 개최됐다.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20년간의 집단민원 해결

시가 수석1지구, 성방1지구, 죽림1지구의 지적불부합으로 인하여 20년 넘게 고통을 받고 있는 집단민원을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해결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00여년 전 일제시대 당시부터 작성되어 사용하던 종이 지적도를 GPS 등 최첨단 장비와 최신 측량기술로 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대체함과 동시에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시는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이 시행되자 20년 넘게 지적불부합지역으

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을 우선 선별하여 2014년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그동안 위성측량 실시와 토지소유자들과 직접 면담과 설득을 통해 새로운 경계에 대한 전원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에 시는 지난 16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이상훈 판사(위원장) 등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계결정위원회 회를 열고, 지적불부합으로 집단민원이 제기됐던 사천읍 수석리, 근명면 성방리, 죽림동 3개지역 231필지 7만2천㎡의 토지에 대한 경계결정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향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결과 통지 후 60일 이내

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통합 지적공부의 작성과 등기축적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에서는 장기간의 집단민원을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토지소유자들의 협조와 양보로 해결할 수 있었다.

향후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디지털 수치지적이 구축돼 정확한 토지정보로 경계 확인을 위한 비용부담이 줄어들고 경계 불일치로 인한 분쟁 예방 및 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어 다양한 경제효과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토지관리과) 831-2841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마케팅 펼쳐

시는 지난 10월 7일 전국의 스포츠관계자 70여명을 초청하여 '스포츠관계자 초청 팸투어'를 펼쳤다.

이번 행사는 농구, 유도, 축구종목 전지훈련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천시의 우수한 공공체육시설 인프라와 전지훈련시 행정지원 사항을 직접 홍보함으로써 전지훈련 유치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가한 스포츠관계자들은 삼천포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 유도체육관

등 체육시설 점검과 호텔엘리너스, 삼천포해상관광호텔, 사천온천랜드 등 숙박시설 견학에 이어 첨단항공우주과학관, 다솔사, 와인갤러리 등 주요관광지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전지훈련 유치시 시에서 운영중인 종합운동장, 체육관, 유도체육관 등의 공공체육시설을 무료로 제공하고 친선경기 연계, 의료진 지원, 숙박업소 할인, 사천관광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사천시는 올해 전지훈련지로 축구, 농구, 유도종목 등 33개팀, 6,800여명을 유치하여 5억여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했으며, 동계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체육지원과) 831-2410

하반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시는 11월 30일까지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징수와 납부 독려에 나선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는 지난 10월 전체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을 일제 발송했고, '체납징수 기동반'을 편성·운영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주·야간영치, 고질체납차량 인도 공매처

분, 고액·고질 체납자 부동산 공매처분 등 강력하게 징수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건당 30만원 이하 소액체납분에 대해서는 읍·면·동별 체납액 줄이기 평가를 실시하여 실적이 우수한 읍·면·동은 징수 실적에 따라 포상을 실시한다. 특히,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관외 고액체납자 납부 독려를 위해 '체납징수 기동반'을 활용하여 타 시·군을 직접 방문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모든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선 자진납부 기회를 주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이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납세자 중심 자립 간접지원 세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세무과) 831-2269

간판개선 시범사업 전국 1위로 선정

시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중인 '2016년 간판개선 시범사업'에 '삼천포 전통수산물시장 간판개선 사업'을 응모하여 전국 1위로 심사에 통과되어 시범사업에 선정되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9월 경남도의 심사에서 사천시를 1위로 창원시와 함안군이 함께 전국 경쟁후보에 올랐으며, 전국 32개 시·군·구가 행정자치부와 옥외광고센터의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10개 지자체가 시범사업 대상으로 결정됐다.



특히, 시는 사업계획의 적절성과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실적 등의 평가 기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경남도 심사와 행정자치부의 심사에서 연이어 1위의 심사점수를 받았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삼천포 전통수산물시장 간판개선 사업'을 4억원(국비 2억원, 지방비 2억원)의 사업비로 2016년에 착공하여 준공할 계획이다. 한편 시에서는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한 꾸준한 관리와 적절한 조치 등의 시책이 이번 공모사업에 좋은 점수로 선정되는 계기가 되었다."며, '삼천포 전통수산물시장 간판개선 사업'을 전국의 아름다운 거리 조성 모델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 건축과) 831-3211

고혈압·당뇨병 아카데미 수료식 가져

시 보건소는 지난 10월 15일(목) 보건소 3층 다목적실에서 고혈압·당뇨병 질환자 70여명에 대한 '고혈압·당뇨병 아카데미' 수료식을 가졌다.

시는 지난 7월부터 매주 목요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 지속적인 치료와 주기적인 관리로 합병증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 시기를 지연하기 위해 관내 '고혈압·당뇨병 아카데미'를 실시해 왔다.

한편, 이날 수료식에서는 아카데미 기간 동안 교육 우수자 5명의 사례 발표를 통해 고혈압·당뇨병에 관한 개인별 정보를 소통하고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시는 고령화와 식습관 변화로 인한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국비 2억7천만원을 확보하여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대상자들을 등록·관리하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진료비, 약제비 지원과 교육을 병행하는 등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 참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보건소(☎831-3565)나 사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835-1870~1)로 문의하면 된다.

☎ 건강증진과) 831-3565

이웃돕기 온정은 전국 최고

추석명절 총 2억 3천여만 원의 시민 온정, 8천 3백여 명 수혜

시민들의 이웃돕기 온정은 여전했다.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 전역에서는 사업장 대표 및 시민들이 각종 물품과 현금 2억 3천 4백여만 원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원했다. 이는 현금 1억 7천 2백여만 원, 물품 6천 2백여만 원 등 총 2억 3천 4백여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독거노인 등 8천 3백여 명이 수혜를 입었다.

한편 시는 작년 연말과 올해 1월 말까지 "희망 2015나눔 캠페인"을 벌여 9억 1천만원을 모금하여 목표액인 2억 3천 8백만원보다 382%를 초과 달성했다.

☎ 주민생활지원과) 831-2601

사천문화원, 대한민국 문화원상 수상

사천문화원(원장 장병석)에서는 지난 10월 8일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개최한 '2015 문화원의 날 기념식'에서 '2015 대한민국 문화원상' 축제 및 문화행사 부문의 "우수프로그램상"을 수상했다. 이번 기념식은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여 전국 229개 문화원 중에서 당당하게 선정되어 값진 성과이다. 사천문화원은 과거재현 및 전국 최고의 한시대회를 펼치는 '구암제'를 2010년부터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여 진행



해 왔으며, 그 독창성과 프로그램 운영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문화원 축제로 선정되어 이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 문화정보과) 831-2710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착수

곤양면 점복개 저수지 착공, 올해부터 순차적 정비

시는 건설한지 50년이 지난 노후 저수지로 재해위험성이 높은 곤양면 중항리 소재 점복개 저수지에 대한 정비 공사를 지난 19일 착수했다. 이번 정비사업은 매년 제당누수로 농업용수가 부족하여 영농

기 불편을 겪어 오던 점복개 저수지에 대하여 국비 2억원을 포함한 총 4억원의 사업비로 내년 봄철 영농기 전까지 저수지 제당보수(그라우팅), 제체사면 정비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 건설과) 831-3279

제1회 곤양면 비봉내 축제

일시 : 2015. 11. 14 (토) 08:30~18:00
장소 : 곤양종합시장 앞

구분	시간	내용
식전행사	08:30~09:30	• 군수부임행차 • 농악공연
개막식	09:30~10:00	• 개회 및 국민의례 • 개회선언 • 주요참석인사 소개 • 위원장 인사 • 축사(시장) • 격려사(국회의원) • 격려사(시의회 의장)
줄다리기	10:00~10:30	• 서부 대 동부
찾아가는 음악회	10:30~11:30	• 한국예총사천지회
전통혼례식	11:30~12:00	• 다문화 가족
밴드공연	12:00~13:00	• 4인조 밴드
자생단체 소개	13:00~14:00	• 단체별 회원
면민장기자랑 (행운권 추첨)	14:00~17:30	• 신청자 사전접수
체험, 식당운영	10:00~17:00	•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프로그램

제1회 곤양면 비봉내축제

- 식전행사**
 - 군수부임행차
 - 농악공연
- 식후행사**
 - 줄다리기
 - 전통혼례
- 전통놀이**
 - 두 호
 - 제기차기
 - 장기놀이
 - 새끼꼬기
 - 윷놀이
- 축제 체험장**
 - 딸기잼 만들기
 - 대나무피리 만들기
 - 도자기 만들기
 - 떡메치기
 - 허수아비 만들기
 - 치즈 만들기
 - 천연자연염색 (요거트 시식)
- 추억의 주전부리**
 - 뽕튀기
 - 어묵
 - 풀빵
- 먹거리 장터**
 - 천남식당(돼지수육, 돼지국밥)
 - 해산물구이
 - 한우고기판매
- 특산물 판매**
- 사진, 그림 전시**
- 동동주(담금주) 시음회**

제19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개최

2016년도 출연금 예산안 심의

사천시의회는 지난 10월 7일부터 15일 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19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사천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출연금 예산안 등 모두 7건이 제출되었으나 1건은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되고 6건을 의결하였다. 15일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6년도 출연금 예산안 및 5건의 조례안을 의결하고 김영애, 최웅석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김봉균, 윤형근, 이종범, 한대식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으로 제19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마쳤다.



사천시의회 제192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 및 답변 요지

김봉균 의원 (총무위원회)

1. 우리 관내 주요 도로의 경우 타 지자체에 비해 인도 확보율이 낮은 편입니다. 특히 면소재지 인근 농촌마을의 보행로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곤명면 금성교 등 일부 교량의 경우 인도가 아예 없거나 사천읍 사주교의 경우 인도 폭이 1미터에 불과해 최소 1.5미터 이상의 인도를 확보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관내 도로와 교량 곳곳에 인도와 안전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조속한 대응 방안이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답변(산업건설국장) ▶ 우리시 관내 주요 도로에서 특히 국도 및 지방도를 끼고 있는 면소재지 1km 내외에 소재해 있는 인근의 농촌마을 보행로 확보가 시급하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 관리청과 원만한 협의 등을 통해 방안을 찾아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도로의 보행로 확보와 교량 안전시설 등 도로 정비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시설 기준에 부합하도록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도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사례를 들어 주신 교량을 비롯한 교량에 대해 보행로 확보와 안전시설 확충에도 여건에 맞추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윤형근 의원 (총무위원회)

1. 우리시 관광명소 8경중 3경에 속해 있는 코끼리바위 및 남일대 해수욕장 일대는 관광명소라는 명칭과는 달리 협소한 도로 상황, 화장실 관리 소홀 및 쓰레기 방치로 인한 악취문제, 건물 노후화로 인한 주변 경관 저해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내고장 향촌동을 지키면서 남일대 해수욕장을 아끼고 가꾸며 사랑해 온 주민들의 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대책과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개발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그에 따른 향후 방향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답변(시장) ▶ 우리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남일대 해수욕장 주변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이용객 및 외래 방문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볼 때 높은 수준

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문제도 제가 취입하기 전부터 마을 앞길을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한 줄 압니다. 그러나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결국 도로를 개설하지 못하였고, 또 축구장 이용에 따른 차량이나 사람들의 통행으로 그 주변 마을의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축구장을 이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이제는 마을 앞길보다는 축구장 주변에 축구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은 매년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환경정비, 화장실 보수 등 시설의 개·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노후로 인한 주변경관의 저해와 관련해서는 2014년도에 사천8경 주변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약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일부 노후건물을 철거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남일대 명승지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다소 시일이 걸리고 있지만 이룸에 걸맞은 유원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벌운동 용강주공아파트에서 향촌동으로 연결되는 1016호선 도시계획도로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많은 차량의 증가로 정체가 극심하며,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년 착공예정인 NSP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으로 대형공사차량의 운행이 예상되므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용강주공 아파트 뒤 도로에서 향촌동 주민센터 옆 지방도 1016호선과 이어주는 도시계획도로와의 연결을 위한 도로망확충 개설사업을 하루 빨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25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오다가 갑자기 예산편성을 거의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향후 70~80억원 정도의 사업경비가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삭감 편성 할 경우 개설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 것인지, 향후 도로개설이 빨리 진행 될 수 있는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답변(시장) ▶ 시가지 교통량 분산과

시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추진 중인 지방도 1016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2006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해서 향촌신호등에서 지방도 1016호선을 지나 수영장입구 구간 약 1.2km는 2015년 4월 개통했습니다. 본 도로는 우리 시에서 처음 개최되는 경남도민체육대회를 위해서 2012년에 51억 원, 2013년에 36억 원 해서 2개년 동안 다른 연도에 비해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년 증가되는 복지에산과 다른 도로개설 등에 투자하다 보니 사업비 배분이 현실적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미개설구간인 용강주공아파트 일원의 도로 연장은 734m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개설하는 데는 약 90억 원 가까운 돈이 소요될 것입니다. 2016년부터 본예산에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민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사천고등학교 기숙사 및 다목적 시청각교실 신축 건에 대하여 약 30억원의 시비가 지원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사업비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집행기관에서 시행하는 토론회도 한번 거치지 않고 시비 지원을 약속한 사유와 앞으로 추진 계획을 시민들이 납득 할 수 있도록 답변 바랍니다.

답변(시장) ▶ 우리 시에서는 지역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으며 그 중 기숙형 명문고등학교 육성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역의 인구증대와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당국은 학교가 교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 예산이나 도 예산을 요구할 때는 먼저 지자체의 대응투자 약속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대응투자의 약속이 없으면 그 예산 신청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요되는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천고등학교에서 인재 육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기숙사 건립 등에 필요한 총 재원 중 학교법인 부담액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국비지원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대응투자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대응투자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금년 6월 초에 경남교육청으로부터 2015년도 특별교부금 25억 원을 확보하여 올해 10억 원 지원과 2016년에 15억 원을 분할 교부하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학교 기숙사가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규모와 내용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필요한 대응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개최한 동지역 학속관 건립 시민토론회에서도 학교별 기숙사 건립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관내에 기숙사 시설이 없는 4개 고교에 대해서는 향후 학교 기숙사 건립에 50% 이상의 재정적 자구책을 마련하면 자율적으로 순서를 정하여 시에서도 거기에 대응하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응투자하겠다는 의사를 표했고, 4개 인문계 고등학교가 거기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고교 교육을 한 걸음 더 선진화 하게 하고, 우리 교육 때문에 사천시를 빠져나가는 학생과 또 사천시로 살러 오지 않는 분들을 우리 시민들로 만들기 위해 학교 기숙사 건립에 투자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1. 우리시의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인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 사업이 재정여건 등으로 업무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바다케이블카사업, 송포 도시점단산업단지 등 대형 프로젝트 사업도 중요하지만, 동반성장해야 할 어르신들의 복지사업도 불가피합니다. 우리시 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약 20억원이 예상되는 경상남도 부지 5필지와 이모 씨 부지 외 10필지 62,000㎡를 매입하여 노인종합복지타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선 결정을 해주시길 바라며, 시 재정여건이 허용된다면 본 사업이 본격 추진되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답변(시장) ▶ 지난해 11월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 관련해서 시민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연관된 시설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견해와 상당기간에 걸쳐 행정절차가 시행된 바 있으니 계획했던 부지에 그대로 시행하지는 의견들이 엇갈렸습니다.

<9면에 계속>

이 사업은 당초 계획이 순수한 시비 200억 원을 투입한다고 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상당한 재정적 압박이 있습니다. 인근 진주시 삼락원 같은 데도 부대시설 중 가장 중요한 목욕탕을 포함하여 주요 시설의 관리·유지비가 많이 들어 재정압박이 너무 심하다는 이유로 폐쇄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복지시설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 또한 많습니다. 우선 시급하고 당면한 문제들부터 해결해 가면서 노인종합복지시설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많은 경로당과 노인회지회 등의 시설이 있으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재정사정이 조금 호전될 때까지 미루었으면 하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 송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신규 추진 계획을 위한 연안 매립허가 공업용지 총량제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우리시의 2030 도시기본계획 중 서부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희망인 광포만 시가지 공업예정지역을 보전지역으로 변경한 것인지, 아니면 KB손해보험 인재니움 연수원 보상금 2,500억원 때문인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시장) ▶ 광포만의 시가지 공업예정지역이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은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일단 공유수면의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이 순로(順路)이고, 우선입니다. 그것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환경생태를 보존하고자 하는 측면의 요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송포도시첨단산업단지 신규 지정과 관련하여 광포만이라는 넓은 지역을 매립예정지계획으로 가지고 있으면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 자체를 첨단도시산단을 계획하고 있는 송포만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이제는 실제적으로 광포만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다 하더라도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분양가가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데 KB손해보험 인재니움 연수원과 관련되어 가격이 상승된 그 부지를 매입해서 조성을 한다면 결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분양 또한 안될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사업시행자도 없습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과는 무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간 이후라도 광포만에 70만 평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가 있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행정적 절차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곤명면-서포면 구간)은 교통량과 대형차량의 운행



사천시장 시정질문 답변.

증가로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현 도로확장사업 계획 또는 위험도로 선행 개선사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상부기관과 보다 긴밀하게 협의하여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현황과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답변(시장) ▶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곤명면-서포면 구간)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경남도가 투입하게 되어 있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정말 불편하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는 굴곡이 심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경남도에 수차례에 걸쳐 그와 같은 개선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관리청인 경남도가 아직은 예산편성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와 같은 굴곡의 개선을 통해서 교통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곤명면 원전리에 위치한 (구)금자돈 축산이 약 2년전부터 양돈을 입식하지 않아 초량, 원전마을 주민은 잠시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무지개 영농조합 법인이 돈을 인수하여 양돈입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은 즉각 입식불가라는 입장을 밝히며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우리시는 시민의 요구를 관철 할 수 있는 특단의 행정 방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관련하여 지난 4월에 개정된 우리시『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는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 인가간 거리 50m 이내 5호 이상 모여 있는 지역에서 700m 이내에서는 허가를 금하고 있습니다.

무지개 영농조합법인은 약 2년여 동안 휴

업 상태인 동 사업장을 2014년 12월 창원 지방법원 진주지원 부동산 임의 경매로 매입한 물건이지 법원으로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까지 경매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우리시는 변경 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신규 허가에 대한 조례를 근거로 법률적인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시장) ▶ 금자돈은 법률적으로 경매에 의해서 승계되었습니다. 그것은 현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락(競落)된 것은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의 전부를 인수하는 자는 종전에 허가받은 지위를 계승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는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시가 인·허가 절차, 또는 수리하는 부분에서 제동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은 다하고,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사육두수에 따라 가축분뇨를 뿌릴 수 있는 일정 면적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스스로 확보하지 못해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기업에게 위탁하는 계약을 맺습니다. 가축의 분뇨처리에 관한 부분을 분뇨처리업체와 계약을 하면 인·허가를 받는 법률 요건은 완성됩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에게 수탁 받은 가축 분뇨처리업체의 능력을 철저히 심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수탁 받은 업체도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야 수탁 받은 내용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조사결과 상당부분의 토지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위탁을 인정할 수 없어 입식할 수 있는 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업체가 많은 토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시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행정력을 동원해서 관계 사실까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구)금자돈의 입식은 어려운 상태이고, 입식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한대식 의원(산업건설위원회)

1. 사천읍 사천여고 앞(우리은행 앞) 오거리 커브지점은 미관상 정돈되지 못한 상태이고 도로폭과 인도폭이 협소하여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위험지역으로 철거 또는 정비가 필요한 곳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부시장) ▶ 사천여고 앞 오거리 굴곡지점은 읍지역의 고성방향 도시계획도로와 시도1호선, 사천여고 옆 일방통행도로가 교차되는 오거리 도로로서 현재 인도폭이 협소하여 다소 통행에 불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먼저 원활한 차량 통행과 시민의 안전 보행에 저해되는 도로의 불법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차량과 보행자가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주민들의 보도 통행량을 면밀히 검토하여 통행량이 많아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게 되면 인도(보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사천초등학교-사천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북쪽편의 인도 폭이 유효폭인 2미터에 해당되는 곳이 한 곳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 11개소의 전봇대와 가로등 중 8개소가 협소한 인도 중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도를 이용하는 시민 및 학생들의 불편이 예상되는데 해소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부시장)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도 중앙에 설치된 전주 시설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뜻을 같이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주가 보도 가운데 있게 된 동기는 2014년 4월경 보차도 경계석이 미설치되고 철거예정 주막이나 간판 등 각종 지장물이 있는 상태에서 전주를 이설하게 됨으로써 전주가 제자리에 위치하지 못하고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에 옮기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지역민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전주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전주가 보도 가운데 오는 일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김영애 의원(총무위원회)

‘사천초등연합학생뮤지컬단’ 관심과 지지 당부

2013년 12월 우리시 관내 18개 초등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사천초등연합학생뮤지컬단’ 오디션에 참가하여 치열한 경쟁 속에서 45명의 합격자가 선발되어, 제1기 ‘사천초등연합학생뮤지컬단’이 창단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2일 41명의 아이들이 7개월 동안 열심히 땀 흘리며 연습한 감동의 공연은 시민들의 열렬한 호응으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번 공연은 우리시 관내 18개 초등학교 학생들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있

는 기회뿐만 아니라 단체생활에서의 봉사 및 희생정신을 함양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계와 사천시, 우리 의원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아이들이 학문적 교육, 나아가 문화예술의 교육을 통해서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도시와의 뮤지컬 공연 및 사천시 스토리텔링을 통한 뮤지컬 공연을 추진하여 우리시를 홍보함으로써 우리시의 또 다른 문화콘텐츠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앞으로도 ‘사천초등연합학생뮤지컬단’이 3기, 4기, 5기로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예산을 아끼지 않고 지원하여 아이들이 꿈과 재능을 발굴할 수 있게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최용석 의원(산업건설위원회)

환경미화원들의 파업사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한 뜻을 모아야 합니다.

지난 9월 23일 추석을 불과 3일 앞두고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사천시공무직지회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사천시의 민간위탁 중단을 주장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였으며 오늘로 23일이 지났습니다. 20여일의 파업으로 인해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과 가족들은 무노동 무임금으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들의 피로는 누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로변 등에는 즉시 처리되지 못한 쓰레기로 인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파업 중인 환경미화원들에게 명확하게 설명

하여 서로의 입장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경제적 논리로만 따지기보다는 시책 추진에 있어 사람이 우선되는 결정을 하기를 바랍니다.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자치단체들도 많이 있지만 이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부정과 비리 등 부작용도 많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파업 중인 환경미화원들도 시민들의 환경권을 볼모로 파업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와의 대화로 사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 민간위탁을 한다고 결정한 것이 없고 단지 용역 보고회만 했음을 유념하고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려면 절차에 따라 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하므로 사천시 일방의 선택만으로 할 수 없으니 지금이라도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해서 서로의 시각차를 좁혀 사태를 풀어갈 것을 촉구합니다.

사천읍 주민센터 전통무용팀 전국대회 '장려상'

사천읍주민자치센터(위원장 김외규) 전통무용팀은 지난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일원에서 개최된 '제8회 전국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상금 1백만원과 함께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44개팀이 참가하여 이틀에 걸쳐 예선과 본선을 치렀다. 한편, 사천읍주민자치센터는 매일 100여



명의 지역민이 자치·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사천청실회 '호 밥상차림 행사' 가져

사천청실회(회장 허태길)는 지난 10월 8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시각장애 어르신 70여명을 모시고 관내 식당에서 5번째 '호 밥상차려 드리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사)경남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사천시지회(회장 박두자) 회원 60

명과 장애인 활동보조인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점심식사를 대접하고 다과를 나누면서 시각장애인들과 초청가수와 함께 노래자랑 대회를 가져 한마당 잔치의 시간이 되었다. 허태길 회장은 "앞으로도 봉사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동면 대곡마을 "숲 축제" 가져

대곡마을회(이장 최진수)는 지난 9월 30일 대곡숲 일원에서 마을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 수피(숲) 데이(day)' 행사를 가졌다. 이번 축제는 '마을 숲'을 문화예술과 접목하여 보존하고 숲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2015년 경남 문화우물사업'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대곡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었다. 이날은 △노래하는 농부들 합창공연 △수퍼스타J 선발대회 △마을자



랑왕 선발대회 △하모니카 연주 등 본 행사에 이어 진주시립합창단의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축동면 자원봉사회 '밑반찬 지원 활동' 귀감

자원봉사회(회장 이미숙)에서는 지난 10월 14일 밑반찬 지원 봉사를 통해 관내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21세대에 정성이 가득 담긴 밑반찬을 전달했다. 밑반찬 지원 봉사활동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매달 한 번씩 있는 정기적인 행사로써 자원봉사회 23명의 회원들은 매달 반찬지원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수산물 가공업체 삼우산업(대표이사 정기현)에서 무상으로 매달 밑반찬 재료를 제공하여 어려운 밑반



찬 지원 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매년 명절 때 마다 제수용 생선을 함께 전달하여 제사를 지내는 부담을 덜어 주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곤양면 '제1회 비봉내 축제' 열린다

곤양면 비봉내 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조복래)는 오는 11월 14일(토) 오전 8시 30분 곤양종합시장 일원에서 지역발전과 상생하는 곤양면을 만들기 위한 '제1회 비봉내 축제'를 연다.



원회를 구성하였고, 특히 경남 문화예술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2015년 문화우물사업'에 공모하여 6백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또한 축

축제명인 '비봉내(飛鳳川)'는 옛 곤양군 성(城) 북문 밖 덩이 하늘을 날아오르는 봉황의 형상이라고 하여, 그 밑에 흐르는 곤양천과 함께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곤양의 비상을 염원하는 지역민의 마음을 담은 축제이다.

제 관계자는 "1회성 행사가 아닌 연례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7면 하단 행사표 참조)

축제 추진위원회는 지난 4월 곤양면 20개 자생단체를 주축으로 하는 축제추진위

곤명면 산불예방 준비 완료

곤명면에서는 지난 19일 산림이 많이 분포한 곤명지역의 산불 제로화를 위해 (구)곤명초등학교에서 2015년 가을철 및 2016년 봄철 산불감시원 선발을 위한 체력검정 및 면접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시험은 소화용 등짐펌프 지고 달리기 등 간단한 체력 검정과 면접을 통해 지난 21일 최종 11명을 선정하여 합격자를 발표했다.



선발된 산불감시원은 지난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산불방지 교육을 수료했으며, 11월 2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196일간 산불 감시초소, 산불발생 취약지역 등에 배치되어 산불예방 순찰활동과 산불방지 및 진화활동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용현면 바르게살기위원회 캠페인 및 환경정화

바르게살기운동 용현면위원회는(위원장 방현주)는 지난 10월 5일 회원 20여명과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현초등학교 앞에서 거리질서확립 캠페인 및 생활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회원들은 등교하는 초등학교생 및 출근길 직장인을 대상으로 신호 준수, 거리질서 확립 등을 적극 홍보하고, 캠페인 실시 후 가로변 청소 및 쓰레기를



수거하여 깨끗한 환경을 가꾸는데 노력했다.

사남면 관내 아파트 '아나바다 행사'로 나눔

지난 10월 3일 사남면 관내 리가아파트 부녀회를 시작으로 24일 엘크루아파트 부녀회에서 '아나바다 행사'가 열려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번 행사는 "아껴쓰고, 나눠쓰고, 받아쓰고, 다시쓰자"라는 '아나바다 운동'의 취지에 맞게 아파트 입주민들이 불필요한 물건을 판매 및 교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이웃간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만남의 장이



되었다. 마련된 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사용 될 예정이다.

서포면 바르게살기운동 위원회, 법질서캠페인

바르게살기운동 서포면위원회(위원장 정종권)는 지난 10월 5일 전체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서포시장과 서포초등학교 일원에서 서포차출소(소장 조영남)와 합동으로 '법질서 확립 및 생활안전 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정종권 위원장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내가 용현면 최고의 산불감시원입니다!

면에서는 지난 10월 22일 산불감시 주민홍보와 산불발생시 초동진화를 위한 산불감시원 선발에 신청한 14명에 대한 체력검정을 실시했다. 이번 산불감시원 선발은 선발인원 7명에 14명이 신청하여 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체력테스트

외에도 연령, 기동력 여부 등 총 5가지 기준으로 보다 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산불감시원을 선발하고자 했다.

선발된 산불감시원들은 2015년 가을철 및 2016년 봄철 산불예방 전도사로 활동하게 된다.

동서동 통장협의회 거리 환경정비 실시

최근 쓰레기 수거활동 지연 및 거리환경 미정비로 인해 민원이 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동서동 통장협의회(회장 정형자)에서 솔선수범하여 지난 10월 6일(화), 16일(금) 양일간에 걸쳐 거리 환경정비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환경정비는 관내 쓰레기 집중 배출장소 및 각산로 등 주요 도로변, 삼천포공공수산물시장 및 수협 활어 위판장, 유람선 선착장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에서 이루어졌다. 동통장협의회에서는 앞으로도 깨끗한 동서동을 만들기 위



해 주기적인 시가지 청소를 실시하고, 내 집·내 점포 앞 청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쓰레기 분리수거, 과대포장 자제 등을 주민들에게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선구동 청년회 “독거노인 효도관광” 실시

청년회(회장 김신명)는 오는 11월 6일(금)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70여명을 모시고 전남 여수·순천 일원으로 ‘효도관광’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효도관광은 홀로 사는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사랑을 전달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한편 박명영 동장은 평소 여행할 기회가 적은 어르신들을 위해 효도관광을 주관하는 청년회



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앞으로도 관내 독거노인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주민자치위원회 “힐링콘서트 아름다운 동행” 개최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곽병환)는 오는 11월 26일(목) 오후 7시 삼천포노인복지관에서 관내 주민 150여명을 초청하여 ‘시와 노래가 하나가 되는 힐링콘서트’를 개최한다. 주민들의 삶의 활력소를 찾아주기 위한 힐링캠프 음악콘서트는 시와 노래를 통해 공동체 안에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삶의 아름다운 변화를 추

구하기 위해 문화예술창작집단(대표 박기연)의 재능기부로 마련됐다. 동 관계자는 “이번 힐링 콘서트는 전문 시인들의 재능 기부로 진행돼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며 “관내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이런 행사가 확대돼 선구동이 더욱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서금동 동서금동-제주도 우도면 17년 우정 과시

동서금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치환)는 1998년 자매결연한 제주도 우도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고해동) 위원들을 초청하여 17년 우정을 대외적으로 과시했다. 양 위원회는 지난 10월 13일 동 주민센터에서 교류행사를 갖고 화합과 교류 증진에 뜻을 같이 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김치환 위원장은 “우도면 자치위원과 직원들의 사천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앞으로 양 지역은 문화, 관광,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통해 동반성장이 기대된다.”며, “지금까지 그랬듯이 양 위원회 위원들이 지역사회의 견인차가 되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봉욱 동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도면 방문 감사인사와 합



계 우리지역의 역점사업인 사천바다케이블카가 올해 12월 착공하여 2018년 가동되면 관광사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도면 주민자치위원들은 이날 사천항공우주박물관, 조명균총, 삼천포대교공원을 둘러보았으며, 지난 14일 아침 삼천포공공시장 견학을 끝으로 1박2일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자원봉사회 “효” 목욕봉사 실시

지난 10월 14일 동서금동 자원봉사회(회장 이영순)에서는 홀로 외롭게 사시는 독거노인 23명을 모시고 옹현면 선진리에 있는 사천온천랜드에서 사랑의 “효” 목욕봉사를 실시했다. 평소 지역의 어려운 이웃돕기에

앞장서고 있는 자원봉사회원들은 혼자 목욕하기 힘든 독거노인들에게 등도 밀어 드리고 머리도 감겨 드리는 등 목욕을 정성껏 시켜드리고 따뜻한 식사도 제공하여 “효”를 실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벌용동 주민자치센터 ‘노래교실 시범 운영’ 호평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노래교실을 추가로 시범 운영하고 있다. 동에서는 신청사 개청으로 100여명 이상을 수용할 정도의 여유 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평소 주민들의 개설 요구가 높았던 노래교실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시범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첫 날인 지난 10월 16일에는 수강생이 140여명이 넘는 정도로 호응도가 좋았다. 박성주 주민자치위원장은 “앞으로도 주민 호응도와 참여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 신현경 동장은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시민 호응도와 운영 미비점을 종합적으로 검토·보완하여 내년부터 정식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요가, 댄스 스포츠, 밸리 댄스, 서예, 사군자, 영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올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조직단체별 ‘시가지 청소’ 동참

지난 한달여간 있던 일부 환경미화원의 파업에 따라 벌용동 조직단체는 월례회 시 환경정화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바르게살기운동, 자연보호, 자원봉사회 등 벌용동 조직단체 회원들은 월례회 시 관내 상업지역 및 주택가 주변 도로를 중심으로 가로 청소를 실시했다. 이번 청소

는 손길이 닿지 않은 상가지역과 주택가 소방 도로변에 방치된 생활쓰레기와 낙엽 등의 수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동 주민센터에서는 ‘내 집, 내 가게 앞 쓰레기 청소는 내가’라는 홍보전단을 자체 제작하여 각 가정과 주요 도로변 상가에 배부한 바 있다.

향촌동 주민자치센터 자매결연 교류행사 실시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지난 10월 10일 자매결연 동인 광주광역시 계림1동과 자매결연 교류행사를 가졌다. 이날 자매결연 교류행사는 광주광역시 동구 주최로 개최된 전국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와 함께 이루어졌다. 동 주민자치센터는 ‘난타팀’이 참가하여 순위에 들지는 못하였으나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주민자치의 핵심’을 실현하고, 앞으로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날 자매결연 행사 및 경연대회

에는 향촌동 주민자치위원, 동직원 및 프로그램(난타팀)참여자 등 3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자매결연 교류행사에서는 양 지역 간의 발전방안에 대한 토의 등 화합행사를 통하여 상호간 친목과 상생발전을 도모했다. 한편, 계림1동과 향촌동은 자매결연을 맺은지 올해로 10년째이며, 양 지역은 서로 끈끈한 형제애를 발휘하여 지역간의 자매결연 모범사례로 거듭나고 있다. 앞으로도 양 지역 간의 발전을 위해 교류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남양동 바르게살기위원회 환경정화 활동 전개

바르게살기운동 남양동위원회(위원장 박점갑)는 지난 10월 16일 임내숲 및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환경정화활동을 벌였다. 이번 활동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주민들의 많은 호평을 얻었으며, ‘내 집 앞은 내가 치우기’ 운동을 확산하는 계기도 되었다. 박점갑 위원장은 “일회성의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정화활동을 통해 관내 환경정비는 물



론 주민들의 성숙된 의식 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사랑회’ 송포천 유채씨 파종

남양동의 대표 지역봉사단체인 ‘남양사랑회(회장 김자성)’는 지난 10월 10일 회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송포천변에 유채씨를 파종했다. 이날 ‘남양사랑회’는 “1단체 1하천구역 사랑모임 자매결연”을 맺고 송포천 풀베기, 퇴적토 및 유수지장물 제거 후 유채씨를 파종함으로

써 내년 봄에 만개한 유채꽃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향후 남양사랑회는 일부구간에 국한된 정비활동을 전 구간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지속적인 송포천 가꾸기 활동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시민만족도 인터넷설문조사 참여안내

- 2015 시민만족도 설문조사 개요
 - 가. 조사기간 : 2015. 10. 22. ~ 11. 10. (20일간)
 - 나. 조사대상 : 사천시청 및 직속기관 방문민원 누구나
 - 다. 조사방법 : 시 홈페이지 (<http://www.sacheon.go.kr/main/>) 설문조사 팝업창
 - 라. 조사내용 : 친절평가 및 만족도, 시민의식 및 욕구파악 등
 - 마. 조사목적
 - 미흡한 행정서비스 개선점 도출
 - 친절행정에 대한 주민의 기대와 욕구를 파악
 - 민원행정 시책 반영
- 문의처 : 민원봉사과 (☎055-831-2982)

2015 인구주택총조사 방문조사 실시

- 방문기간 : 2015. 11. 1. ~ 2015. 11. 15. (15일간)
- 조사대상 : 조사 기준 시점 현재 대한민국 영토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
- 조사항목
 - 전수조사 : 12개항목(성명, 성별, 거처의 종류 등)
 - 표본조사 : 52개항목(성명, 성별, 국적, 사용 방수, 아동보육, 거주기간 등)
- 조사방법 : 인터넷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이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 면접조사 실시
- 문의처 : 기획예산담당관 (☎055-831-2212)

기탁금 기탁제도 안내

- 기탁금 제도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려는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기탁할 수 있는 자 ※ 외국인과 법인·단체는 기부 불가
 -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합니다.
 -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할 수 있습니다.
- 기탁할 수 있는 금액
 - ▶ 1회 1만원 이상 기탁 가능
 - ▶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 이하의 금액
- 기탁방법

기탁서를 작성한 후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방문 또는 전화, FAX로 신청
- 세제혜택

기탁한 10만원 이하 정치후원금은 연말정산시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
 ⇨ 10만원 초과 금액은 비율에 따라 공제
 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만 공제받음
- 문의처 :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055-854-1390 / F.0505-058-3627)

2015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 ◆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개요
 - 정리가간 : 2015. 11. 2(월) ~ 12. 18(금)
 - 추진기관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출장소)
 - 중점정리내용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90세 이상 고령자(1925.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 2015.9.30. 기준 90세 이상자 : 570명(사천시)
 -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 기간 : 2015.11.2. ~ 2015.12.18. (47일간)
- ◆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일정
 -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 11. 2. ~ 12. 13. (42일간)
 - 직권조치 및 정리 : 12. 14. ~ 12. 18. (5일간)
- ◆ 주민등록사항 관련
 - 거주지를 옮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전입신고
 - 만약 거주사항과 주민등록 사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 되며, 재등록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이면 도로명 주소표기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고 및 문의처 :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시 민원봉사과 (☎055-831-2983)

문화예술로 여는 '제6회 사천예술제' 개최

11.7(토)~8(일) 2일간 / 문화예술회관

□ 첫째날(11. 7(토))

행사명	시간	장소	내용	비고
한려미술초대전	10:00~18:00	전시실	한려국립해상공원 지역 초대전	미술협회
시화전	14:00~21:00	광장	문인협회 시화전	문인협회
청소년 락페스티벌 경연대회	14:00~17:00	대공연장	사천시 관내 청소년 락 페스티벌 경연대회	본선 진출팀
문화예술로 여는 사천예술제 및 사랑에 음악회	17:30~18:30	대공연장	▷국악협회 -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한마당	판소리, 모듬북 전통무용
	19:00~20:00	대공연장	▷연예협회 - 즐거운 가요 가을 음악회	대중음악(트롯)

□ 둘째날(11. 8(일))

행사명	시간	장소	내용	비고
한려미술초대전	10:00~18:00	전시실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 초대전	미술협회
시화전	14:00~21:00	광장	문인협회 시화전	문인협회
문화예술로 여는 사천예술제	16:00~17:00	대공연장	윈드 오케스트라	음악협회
	19:00~20:30	대공연장	본 공연	바리톤-김동규 아카펠라 사천 팝스 기타와 아쟁 색소폰

□ 문의처 : 사천예총 (☎ 055-834-8721)

생활쓰레기 수거시간 조정 시행

- 추진배경
 - 생활쓰레기 수거 체계의 효율적 추진
- 시행일자 : 2015. 12. 1. 시행
- 조정내용

조정 전				조정 후		
구분	평일	근무 시간	휴게시간	구분	근무 시간	비고
하절기 (3월~10월)	평일	05:00~17:00	07:30~09:30 (2시간) 12:00~14:00 (2시간)	연중 (1월~12월)	평일	08:00~17:00 (중식시간)
	토요일	05:00~09:00	없음			
동절기 (11월~2월)	평일	06:00~17:00	08:00~09:30 (1시간 30분) 12:00~13:30 (1시간 30분)	토요일	08:00~11:00	
	토요일	06:00~10:00	없음			

□ 시행부서 : 환경사업소 청소담당 (☎ 055-831-5600~4)

※ 매일 08:00 이전에 생활쓰레기가 배출될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 안내

평소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천시는 그동안 계속된 상·하수도 사업의 재정적자 운영에도 불구하고, 시민 여러분의 가계 부담을 고려하여 사용료 인상을 자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낮은 사용료로 인해 정부의 요금 현실화 권고와 더불어 지방공기업 재정건전화를 위한 제반 절차를 거쳐 부득이 **2015년 11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시민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 하겠으며,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상·하수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금현황

구 분	톤당 생산원가(A)	인상 전 톤당 요금(B)	인상 후 톤당 요금(C)	최근 인상연도	인상 전 요금현실화율(B/A)	인상 후 요금현실화율(C/A)
상수도	1,238원	827원	1,075원	2003년	66.8%	86.9%
하수도	2,120원	298원	387원	2009년	14.1%	18.3%

2015년 11월부터 상·하수도 요금 체계가 달라집니다.

- 적용시기 : 2015년 11월 고지분(10월 검침분)
- 업종별 누진단계 축소
 - 일반용 5단계, 대중탕용 4단계에서 ▶ 누진 3단계로 조정
 - 가정용, 전용공업용은 변동없음.

※ 2015년 11월 고지분부터 적용되는 요금은 사천시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 10.



사천시 상하수도사업소

문의 : 상수도 ☎055)831-5511, 5510/하수도 ☎055)831-5542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기저귀 : 중위소득 40%이하의 만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
 - 3인 가구 월평균소득 1,376,546원, 4인 가구 월평균소득 1,689,019원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지원내용

- 기저귀 : 기저귀 구매 비용 일정액 월 3만2천원 지원
- 조제분유 :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 비용 일정액 월 4만3천원 지원

◇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 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 사용방법

- 구매가능한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 우체국쇼핑몰(<http://mall.epost.go.kr>) 중소기업청 등록업체 “나들가게”
 - 나들가게(<http://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검색 가능

◇ 신청기간

-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12개월 전일까지 신청 가능
- 출생일로부터 60일까지는 신청일과 관계없이 12개월분 지원하며,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 *예외적으로 '14.10월생은' 15.10.30일까지 신청할 경우 1개월분을 지원

◇ 신청장소

- 지원대상 영아가 주민등록된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129번) 또는 사천시보건소(☎055-831-3515)

경남 시·군 행사소식

창원시(단풍거리 축전)

- 기 간 : 2015. 11. 7(토) ~ 11. 8(일) / 2일간
- 내 용 : 메타세콰이어 단풍과 어우러진 공연, 전시 체험행사
- 장 소 : 창원시 성산아트홀 야외무대, 용호동 메타세콰이어 거리
- 문의처 : 한국예총창원지부 ☎055-267-5599

통영시(제9회 이순신장군배 국제 요트대회)

- 기 간 : 2015. 11. 4(수) ~ 11. 8(일) 5일간
- 장 소 : 통영해양스포츠센터
- 문의처 : 국제요트대회 사무국 ☎055-643-3335
- ※ 해상개막식(요트 퍼레이드) : 11. 7(토) 11:00
통영국제음악당 앞바다

김해시(진영단감제)

- 기 간 : 2015. 11. 6(금) ~ 11. 8(일) 3일간

- 내 용 : 단감 아가씨 선발대회, 불꽃놀이, 사생대회, 체험행사 등
- 장 소 : 김해시 진영공설운동장, 진영읍 일원
- 문의처 : 진영단감제전위원회 ☎055-343-2242

거제시(제9회 거제섬꽃축제)

- 기 간 : 2015. 10. 31(토) ~ 11. 8(일) / 9일간
- 장 소 : 거제시농업기술개발원(거제면 남서로 3577)
- 입장료(문의처 : 축제위원회 ☎055-755-9111)
 - 개인 : 성인(3,000원) / 청소년·어린이(2,000원)
 - 단체 : 성인(2,000원) / 청소년·어린이(1,000원)
 - 우대 :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우 등 무료
- 문의처 : 거제시농업기술센터 ☎055-639-6443

거창군(제8회 국화전시회)

- 기 간 : 2015. 10. 22(목) ~ 11. 8(일) 18일간
- 장 소 : 거창사건추모공원 일원
- 문의처 : 거창사건사업소 ☎055-940-8510

박재삼의 삶과 문학(8) 정삼조(시인·문학박사·박재삼문학관운영위원)

이번 호부터는 대략 3회에 걸쳐 박재삼 시의 소재 중 '자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도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일찍 깨달은 박재삼 시인은 자연을 소재로 한 감동적인 시를 많이 남겼습니다. 이 자연은 앞서 살핀 가난, 사랑과 잘 어울리고 다음에 소개드릴 소재인 삶의 허무를 깨닫는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자연을 노래한 시(1)

박재삼 시의 가장 중요한 소재는 당연히 삶입니다.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이 시가 되고 그 생각과 느낌이 확대되어 다시 새롭고 아름다운 시를 생산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 속의 삶은 자연과 가장 깊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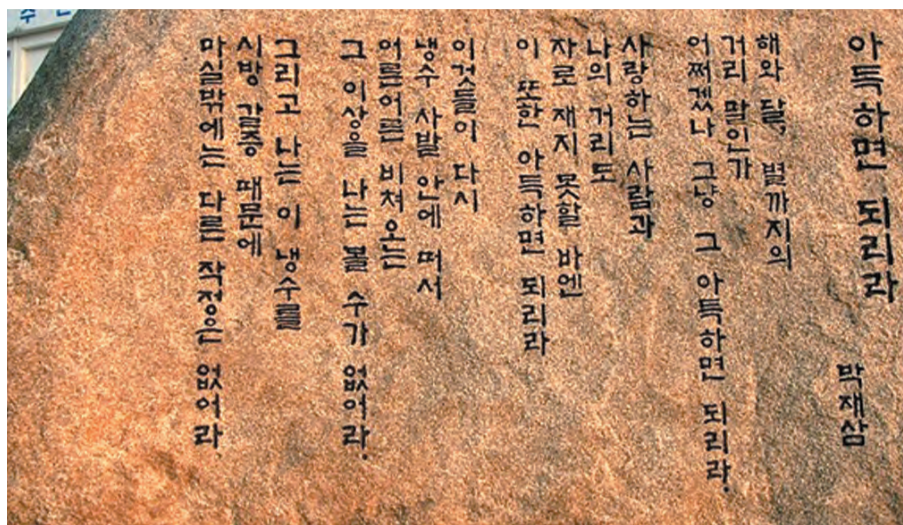
이 자연은 단순히 좋은 경치로 놓여 일시적인 위안이나 관광꺼리로서의 자연도 될 수 있겠지만 박재삼 시의 자연은 이런 순수하지 못한 동기가 전혀 섞이지 않은 자연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자연의 일부이니 그 삶도 자연의 일부일밖에 없다는 데에 박재삼 시의 자연관은 놓입니다.

이런 순수한 자연관을 가졌기에 박재삼 시에서는 당연히 사람이 자연의 일부가 되고, 자연이 사람을 키워가고, 가장 평화로운 일이 자연을 가장 잘 닦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 죽어 아주 자연스럽게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며 새로운 자연의 모습으로 다시 환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는 삶의 모습, 그것을 박재삼 시인은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노래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관을 박재삼 시인은 어릴 때부터 터득해 가지고 있었던 듯합니다. 가난했던 소년 박재삼은 여유 있는 다른 놀이보다 돈이 들지 않는 자연에 먼저 눈이 뒀던 것입니다.

紅柿(홍시)에서 받은 추억

가을날 해는 짧은데,
아버지 어머니는 장사를 나가시고
캄캄해져야 돌아오는데,
혼자서 집을 보며
서러움에 복받쳐
오직 우리는 왜 못살까만



삼천포대교공원 '박재삼 시비'

골똘히 느끼고 생각하고 있었다.

눈물이 글썽이던 것을
더욱 찬란한 것으로만 모두우며
감나무 끝에
홍시들이 빨갭게 익어
그것은 전적으로
햇빛과 바람이 빛은
덕택이란 것을 알고
이것이 부잣집이라고
많이 내리고
가난한 집이라고 하여
적게 내리는 것이 아님을
똑똑히 보며
만가지 수심을 지울 수가 있었다.

아, 그러나
가난에 매인 심정일수록
그것은 제자리를 찾아 내린다는
대전제만 하늘처럼 믿다가
그것이 오늘까지 와서
세상에서 제일 착하게
나를 맨발로
역사의 현장에 서게 했더니라.

비교적 후기의 시라 하겠으나, 박재삼

시인 자신이 자기 시의 출발을 정리하고 있는 시이어서 초기시의 정서를 잘 드러내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에서의 핵심은 재물은 불공평해도 자연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지켜온 믿음인 '자연 앞에 평등한 인간사'를 확인하면서 자기의 일생이 이 자연의 섭리를 좇아 크게 어긋남이 없었다는 슬회를 함으로써 일생을 정리한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생활인으로서 시인은 평생 양심을 지켜 왔고 가난에 매이지 않고, 즉 재물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면서, 가진 것 없는 '맨발'로 거친 세상, 곧 역사적 현장을 헤쳐 왔습니다. 박재삼 시인만큼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 고난을 정리하고 정화시키며, 세상의 다수인 그 가난한 사람들이 '역사의 현장'을 헤쳐나가는 데 박재삼 시인만큼 길을 잘 잡아준 사람도 드물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다음 시는 이런 자연관을 더 일반화시킨 시입니다.

흥부의 햇빛과 바람
천석꾼 만석꾼의 재산 불어나는
그 기쁜 인생도

저 햇빛과 바람이 짜 올리는
씨와 날의 밝고 넘치는 것을
당할 수야 없으리.

하늘이어
저 햇빛과 바람이 짜내는 엄청난 재산을
누구나 골고루 갖게는 하되
욕심많은 놀부한테보다 더 많이
흥부한테는 눈물 섞어
그것을 갖게 하는 곡절을
나는 오늘 비로소
마태복음에서 읽어낸 참이노라.

한 해에 천 석 만 석을 거두는 큰 부자들의 재산 불리는 기쁨보다도 자연의 아름다움이 훨씬 보배롭다는 것을 첫 연에서 시인은 감칠맛 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둘째 연에서는 그 아름다운 자연을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눈물과 함께 더 잘 누린다는 것을 노래합니다. 흥부는 착하고 가난한 사람을, 놀부는 부자이나 심술 많은 사람을 대표합니다.

판은 부자들은 재산 불리고 관리하는 일에 바빠 자연을 돌아볼 새가 없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에 비해 가난한 사람들은 배고프고 가슴 아픈 일을 당하며 살지라도 하늘을 보고 땅을 가꾸며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지요.

'하늘이어'라고 부른 까닭은 하늘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들고 나온 것은 이런 사실이 성경에도 적혀 있을 법한 진리라는 뜻쯤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연을 즐기기 위해 일부러 가난할 사람이야 없을 것이지만, 부자보다도 가난한 사람이 자연의 혜택면에서는 더 우월하다는 사실과 가난한 만큼 죄에 연루되지 않는다는 숨은 가정에 의지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설운 마음을 따뜻이 감싸 안는 시입니다.

사주 천년, 황제(고려 현종)를 품은 땅 '사천' (7) 장필복매 (葬必伏埋) 공대원 (사천문화원 사무국장)

'목종의 반격과 강조'

천추태후와 김치양이 왕권을 빼앗아 국사를 좌지우지 할 뿐 아니라 김치양은 한 술 더 떠서 자신들의 아들로 하여금 목종의 뒤를 잇게 하려고 궁궐에 불을 질러 목종을 암살하려 하였다.

원래 병약한 몸이었던 목종은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병석에 눕게 되고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후사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하게 된다. 이때 목종은 채충순을 불러 봉서 하나를 집어 내어주니 곧 대량원군 왕순이 삼각산에서 올린 것 이었다 그 봉서에 말하기를 "간악한 무

리들이 사람을 보내어 둘러싸서 퍽박하고 주석까지 주므로 신은 독약이 들었는가 의심하여 먹지 않고 까마귀를 주었더니 까마귀가 죽었습니다. 음모의 위급함이 이와 같아오니 원컨대 성상께서는 신을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적혀 있는 것이 아닌가. 채충순이 봉서를 읽고 나서 아뢰기를 "형세가 급하옵니다. 일찍 도모해야 되겠습니다" 하였다.

드디어 반격을 결정한 목종은 채충순과 의논해 선취판관 황보유익과 낭장 문연 등을 신혈사에 보내어 대량원군을 맞

아오게 하는 한편, 서경에서 북방을 지키던 강조에게 명해서 상경해 자신을 호위하게 하였다.

고려의 왕권이 왕씨에서 김씨로 넘어가는 것을 막고 사직을 지키고자 목종은 반격의 칼날을 세웠고, 어머니인 천추태후와 김치양일당과의 피말리는 암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목종이 준비한 신의 한수였던 강조를 천추태후가 중간에서 거것으로 속여 돌려보내면서 목종의 반격이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그러나 그 신의 한수가 약속로 돌아왔다.

서경으로 돌아간 강조에게 강조의 아버지가 "왕은 이미 승하하셨으며, 간흉들이 권세를 마음대로 부리니 와서 평정하라"

고 편지를 보내고, 이를 본 강조는 군사를 일으켜 개경으로 진격하게 된다. 평산에 이르러 목종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강조는 이미 군사를 일으켜 이곳까지 왔는데 되돌아가면 반란을 피하였다 할 것이 명백함으로 부하 장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목종의 폐위를 결정하게 된다.

목종의 뜻을 알지 못한 강조는 감찰어사 김응인에게 군사를 주어 유일한 왕건의 후손인 대량원군 왕순을 맞이하기 위하여 신혈사로 보내고, 목종을 안심 시키고자 사람을 시켜 "국왕께서 놀랄까 두렵사오니 용흥의 귀법사로 피해 있으면 김치양의 간당을 제거 한 다음 다시 데리러 가겠나이다"는 장계를 올리는데...



우주항공소년 토록이의 항공 이야기(139)

저비용항공사(LCC) (1)

저비용항공사(LCC: Low Cost Carrier)는 기내 서비스를 줄이거나 보유 항공기의 기종을 통일하여 유지 관리비를 줄이는 등의 운용효율 극대화과 더불어 인터넷을 통한 항공권 판매, 저가공항 이용을 통한 비용절감을 통해 기존 대형 항공사(FSC : Full Service Carrier)에 비해 낮은 운임으로 운행하는 항공사를 말한다. 이 개념은 미국에서 처음 고안되어 1990년대 초에 유럽으로 확산되었고, 현재는 저비용 항공사의 여객기들이 비행시간 3~4시간 이내의 단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세계 전역에서 운항되고 있다.

가격이 저렴한 저비용항공사는 엄밀히 따지자면 저비용항공사(Low Cost Carrier)와 저가항공사(Low Fare Airline)로 구분된다. 저비용항공사(LCC)는 단순히 항공요금만 내린 저가항공사(LFA)와 달리 항공기 운영에 드는 비용을 합리적인 원가절감을 통해 가격을 낮춘 항공사로 여러 편의를 제공하는 기존 항공사 대비 30~50% 수준의 가격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에는 저비용항공사를 저가항공사로 많이 혼용해 부르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자면 저비용항공사라 불러야 할 것이다.

저비용항공사(LCC)는 독립형 저비용항공사(LCC)와 자회사형 저비용항공사(LCC)로 구분이 가능하다. 독립형 저비용항공사(LCC)는 LCC의 일반적 형태로 항공기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비용절감을 통한 저 운임 정책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미국과 유럽지

역 등 풍부한 항공 여행객들을 활용한 노선 운영으로 신규 수요를 창출하며 성장하고 있으며, 사우스웨스트항공, 라이언에어, 이지제트, 에어아시아, 제주항공 등이 있다. 자회사형 저비용항공사(LCC)는 시장에서 LCC가 기존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기존 항공사가 기내 서비스 및 운영비 등을 절감하면서 LCC 비즈니스 모델을 따라서 운영하는 형태를 말하며, 젯스타, 진에어, 에어부산 등이 있다. 자회사형 LCC는 모회사의 국제선 노선보다 국내선과 같은 지선 노선을 연결하는데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저비용항공사(LCC)는 대형 허브공항 대신 혼잡하지 않은 보조공항을 이용하여 기본적으로 국내선 및 단거리 위주의 지점 대 지점(Point-to-point) 노선을 운항하며 연결승객이나 갈아타는 승객이 없어 항공기 운항에 있어 항공기 회전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조공항 이용을 통해 공항 사용료 부담을 절감하여 운영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항공당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국내 LCC는 김포, 제주, 김해 공항을 허브로 노선을 운영 중이나, 국제선의 경우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소형기 및 단일 기종 위주의 항공기 운용을 통해 구매 및 임대가 수월하고, 조종사, 정비사, 승무원 훈련비용과 정비보수 비용을 줄일 수 있어 항공기 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가지고 있다.

김형래 교수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수험생 여러분, 수능 대박을 응원합니다!

김점 이(사천시 사남면)

11월 12일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 여러분! 열심히 노력한 만큼 최상의 컨디션에서 좋은 결실 이룰 수 있기를 바라며,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 자녀와 함께 수험생이 되어 함께해온 시간 좋은 결과로 감사와 행복의 미소 지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여행을 떠날 때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헤매기 쉽습니다. 시험을 치르기에 앞서 이 시험을 왜 치러야 하는지 진정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고 올바른 목적지를 향했다면 한눈팔거나 뒤돌아보지 말고 그 길에 정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길을 가는 동안 떠날 때 지냈던 첫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인생은 선택의 여정이라 했습니다. 두 갈래 길 중에서 이 길을 선택할 수도, 저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한 길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그 길을 걷게 되길 희망해 봅니다.

때론 너무 힘에 겨워 모든 것을 내팽개치거나 어디론가 멀리 도망치고 싶은 유혹과 시련, 아픔은 있기 마련이기에 당당히 그 시



련 앞에 맞설 수 있는 인내와 용기를 가지기 바랍니다.

수능을 준비해온 모든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새벽을 낮 같이 잠 못 이루며 정성을 다하여 뒷바라지 한 학부모님들! 정말 눈물겨운 노력과 정성에 감동의 격려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일 정성들인 만큼 그리고 편안하게 수능시험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온 시민의 힘을 모아 응원의 메시지 보냅니다. 파이팅!

독자 퀴즈

사천시가 올해말 착공을 목표로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사천바다케이블카'의 노선은 대방(탐승)-()-각산이다. ()안에 해당되는 섬은 어디일까요?



- ① 늑도 ② 신수도 ③ 학섬 ④ 초양도

정답을 아시는 분은 사천시 공보메일 (shgongbo@korea.kr)로 정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연락처, 주소 기재)
* 정답을 맞힌 몇 분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매월 10일까지 접수되는 분에 한하여 추첨을 통해 상품권 지급자 선정)

곤양면 물고뱅이마을 이야기



사천시문화관광해설사 배시남

<10월호에 이어서>



만점의 보안암(미륵암) 옆에 있는 시루떡 바위는 시루떡과 같이 생겼다고 지어진 이름이며, 만점 입구에 있는 탕근 바위는 그 모양이 탕근과 같이 생겼다고 하여 탕근 바위라고 부르고 있으며 바위가 현존하고 있다. 또한 원동(院洞)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신촌 서쪽 마을로 원님이 쉬어 가는 원두막이 있었다고 하여 부르는 마을이며, 신촌 평촌 서북쪽에도 새로 생긴 마을이 있습니다.

한편, 정유재란 2차 백의종군할 때 이순신 장군께서는 이쪽을 통해 남해노량을 왕래하였던 곳이기도 하며, 이에 부합하여 이 무고리의 지명도 당시의 역사를 흔적이라도 남긴 듯 마을 구석구석 지명이 연관되어 있기도 합니다.

궁골이라는 골짜기가 있는데 궁골(弓谷)은 신촌의 북쪽에 있는 마을로 활 모양으로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상

촌(上村)이라는 마을은 신촌의 동쪽에 있는 마을이고 평촌(坪村) 무고의 한 마을로 들판에 마을이 이루어져 있으며, 마을 가운데는 정자나무(느티나무) 군(群)이 있는데 마을에서는 이 정자나무를 큰 정자나무와 작은 정자나무로 부르고 있다. 큰 정자나무(수령 250년 이상)에는 주로 남자 분들이 많이 모이고, 작은 정자나무(수령 150년 정도)에는 부인들이 많이 모여서 더위를 식히면서 여름 한철을 보내는 상

평(上坪) 마을의 쉼터가 되고 있는데, 큰 정자나무에서는 동제(洞祭)를 모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평(上村) 마을 앞을 가로질러 평촌(坪村) 마을의 뒷들로 흐르는 냇가에는 왕(王)바위라는 큰 바위가 있었는데, 경지정리로 땅속에 묻혀 그 일부만 보이고 있으며, 이 바위는 예부터 용왕제(龍王祭)를 모셔 오던 영암(靈岩)으로 알려져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왕바위를 제자리에 복원시켜 놓아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그리고 평촌 마을의 뒷들에는 지금도 옛 기와와 사기 조각(김기태 박사 소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구전(口傳)에 의하면 옛날에 큰 부자가 이 마을에 살았으나 옛 마을은 없어지고 지금의 새 마을이 생겼다고 전하여 오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에 의하면 언젠가는

고증(考證)을 거쳐 이 마을의 유래(由來)를 밝히면 무고의 유래도 밝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촌의 다솔골은 현고등(懸鼓嶺)으로서 북을 달아 놓은 형상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이골의 뒤흘에는 다솔사(多率寺)가 자리하고 있고 보안암은 북쪽에 있는 암자로 다솔사에 속하는 산내 암자이며, 이 암자에는 돌로써 석굴을 만들어 부처를 모시고 있다. 일명 미륵암(미륵굴)이라 하며 해가 뜨면 이 해가 미륵부처를 비추어서 자비로움을 더해 준다고 하며, 이 보안암을 감싸고 있는 산이 물불이산(水瀾山)이다. 이 산은 미륵암 옆에 있는 작은 산으로 가뭄 때 곤양 군수가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다고 합니다.

불당골은 상촌 서북쪽 골짜기인데 옛날 절이 있었다고 전하여 지고, 삼밭골은 상촌 서쪽 골짜기인데 옛날 여기에서 산삼을 캐었다고 하며, 정마소(停馬所)는 궁골에 있는 곳으로 말 모양을 닮아 장군들이 이 곳에 말을 세워두었던 곳이라고도 하고 말에게 죽을 먹이던 곳이 있기도 하며, 여기에 말을 세워 두었던 장소라고 전합니다.

<다음 호에서 계속됩니다.>

건강/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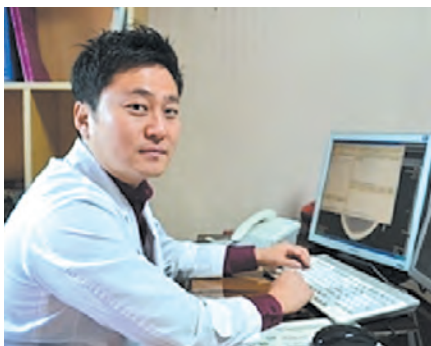
어깨가 아프십니까?

어깨 통증은 어깨 주위의 관절과 그 주위의 인대, 근육의 문제 혹은 신경 장애로 인해 아픈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문제가 없다가 어느 날 일상생활 중에 어깨를 사용할 때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나 옷을 입거나 집안일을 할 때 이전과 달리 어깨 움직임이 수월하지 못한 경우라면 어깨 통증인 것입니다.

어깨 관절의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은 상당히 많이 있지만 흔히 어깨 관절 통증을 모두 오십견일 것이라고 오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어깨 통증의 원인은 어깨 관절 자체의 문제, 어깨 관절 주위의 연부조직 문제, 목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등의 경추부 질환, 암, 감염, 골절 등 다양하며 실제로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전체 질환 중에서는 오히려 어깨 관절 주위 연부조직 문제 중의 하나인 어깨힘줄손상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십견과 어깨힘줄손상의 차이점을 비교하면, 오십견은 서서히 진행하며 초기에는 밤에 특히 통증이 심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방향으로 어깨 관절 운동의 제한을 보이게 됩니다. 어깨힘줄손상의 경우는 갑작스런 통증이 유발되며 주로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에서 심한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X-ray로는 어깨 관절의 근육이나 힘줄을 볼 수가 없어 인대, 힘줄 등의 문제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김병훈
삼천포 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

진단을 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회전근개 파열이 가장 문제가 되는 환자를 오십견으로 생각하고 심한 어깨 관절 운동만을 시행한다면 회전근개의 더 심한 파열을 가져올 수 있어 초음파나 MRI 검사 등에 의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이 쉽게 치료가 안 되는 경우는 대부분 오랜 기간 동안 통증을 참아온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동안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하며 처음 어깨통증이 생겼을 때 초음파 등을 이용한 검사와 함께 단계적으로 주사요법과 약물요법, 운동치료, 관절경 수술과 재활치료 등을 모두 시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의료 팀에 의해 진단부터 치료까지 받아야 합니다.

- 사천아카데미 제96강좌 -



생활 풍수와 조경

○ 일 시 : 2015. 11. 19(목) 14:00 / 시청대강당
○ 강 사 : 이봉석 스님(의령 유학사 주지스님)

시청 공무원의 '아름다운 기부'

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 기금으로 1억원 기탁

시청직원의 '아름다운 기부'로 잔잔한 감동을 더하고 있다. 그 주인공인 엄경희(행정6급, 여, 44세) 주무관이 (재)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기금에 1억원을 기탁했다. 엄 주무관은 8년전 암 발병으로 여러 차례 힘든 수술에도 굴하지 않고 병마와 싸워 하루빨리 일상과 몸담은 직장으로 복귀하고자 하였으나, 쉽게 호전되지 않아 850여 공직자와 주위에 안타까움을 더해 왔다. 이번 기부는 엄 주무관이 명예퇴직을 결심하면서 평소 검소한 생활을 통해 차곡차곡 모아온 저금과 퇴직금으로 마련했으며, "어렵고 힘든 젊은 인재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펼쳐 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기부를 결정하였다."면서 본인도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외롭게 성장하여 늘 못다한 학업의 꿈이



엄경희 주무관

있었다고 회상했다. 특히 엄 주무관은 항상 직장 과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을 잃지 않았으며, 시청근무기간 동안 예산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력을 발휘하여 효율적 예산안 마련, 예산절감 등으로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장관표창 등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아 왔다. 한편 엄 주무관의 뜻 있고 값진 기부에 대해 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인 송도근 사천시장은 "힘든 투병생활에서 하루빨리 쾌차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며,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재단에 큰 결정을 해주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사천시 기획공연

뮤지컬 상하이의 불꽃

2015. 11. 20.
1회_15:00 / 2회_19:30 (1일 2회)

중국 영화 황제 김연 그는 조선인 이었다. 대륙을 뒤흔든 조선 청년 김연(金燦)의 일대기

입장료 | 일반 10,000원 단체 및 문화가족 7,000원 | 입장권 예매일 | 인터넷 및 방문 11.09.부터/전화예매 11.16.부터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천시 주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탄사 후원 | 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
사천시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http://art.sacheon.go.kr> TEL. (055) 831-2460

사라진 요괴위치를 찾아라!

우리말녹음 전체 관람가

극장판 **요괴위치** 사천시 기획영화

2015년 11월 14일(토요일)
상영시간: 오후: 11시/ 3시 | 관람료: 일반 2,000원/ 문화가족 10인 이상 1,000원

사천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주최: 사천시 | 문의전화 055-831-2460 | **음식물 반입금지**
주관: 대원영화사 | 티켓예매: 11월 2일(월)부터 인터넷예매 / 11월 9일(월)부터 전화예매